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았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내 종교와 내 하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 순교 직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언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지 신심미사

입당 성가	봉헌 성가	성체 성가	피건 성가
358	455	빈주	573

제 1 독시 2역대 24,18-22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르야를 살해하였다(마태 23,35 참조).>

회 답 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 2 독시 로마 5,1-5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마태 10,17-22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영성재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성 프란치스코 성당

미사 시간 안내

주일 미사	일요일	17 : 30
평일 미사	월 - 금	12 : 15
교직원 미사	매월 마지막 주 목	12 : 15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며 청년·선교·소명 여정의 표징이신 한국인 최초의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이다. 1821년 8월 21일 솔피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16세때 피에르 모방 신부 주선으로 최양업 토마스·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 유학을 떠났고 신학공부를 이어가다 1845년 8월 17일 상해부근 김가항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 집전으로 사제품을 받았다. 이어 8월 24일 횡당 신학교 성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한 후 조선으로 어렵게 다시 넘어와 서울과 그 인근의 교우들을 방문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선교활동에 힘쓰다가 체포되어 사제 생활 1년 1개월만인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26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이후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한국 순교성인' 중 한 명으로 성인 품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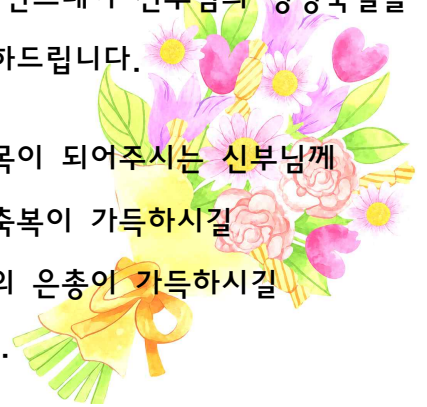
◎ 미사 변경 안내

- **7/17(금) 제헌절**로 인하여 미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목처장 백승훈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

늘 항상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구성원들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교목처장 백승훈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신부님께 영명축일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또한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CKU 가톨릭학생회 회원 모집

성 프란치스코 성당 공동체에서 동아리 활동, 전례 봉사 및 기타 봉사활동을 하는 CKU 가톨릭학생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장	연락처
이기용 펠릭스 스포츠재활의학전공	033-649-8324(교목팀)



성모상 앞 초 봉헌함 초 봉헌금은 정성껏 넣어주세요.

수익금은 가톨릭학생회 '다솜'의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 미사 참례 현황 및 우리들의 정성 ☐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	₩ 237,000
6/28 (일)	6/29 (월)	6/30 (화)	7/1 (수)	7/2 (목)	7/3 (금)
인천교구 사제 연수로 인해 미사 없음					

❖ 위장 접근 **신천지, JMS, 구원파 등 유사종교**에 주의하세요!

● 유사종교 피해상담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목처 033-649-8324